

Robert Yarbrough 박사, 목회서신, 세션 11, 디모데후서 4장

© 2024 로버트 야브로(Robert Yarbrough)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목회 서신에 대한 가르침,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 세션 11, 디모데후서 4장에서 로버트 W. 야브로 박사입니다.

목회서신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계속되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코퍼스에 대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 있고 이것이 NIV의 제목에 따라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기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비란은 310에서 시작하여 4장 8절로 이어지며, 여기서 개인적인 발언과 마지막 인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그의 첫 인사 이후에 감사기도를 하고 복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충성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불충성과 충성의 예, 호소력이 새롭게 되고 거짓 교사들을 다루는 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특징짓는 패턴과 언어, 문제의 종류에 대한 많은 반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그 장면에서 지나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는 조금 더 비애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는 디모데가 은혜로 인해 바울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승진할 때 일어날 전환을 위해 그를 만들 수 있는 만큼 강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앞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복음 사역에 반대가 있는 것처럼 배도도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정한 배반이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를 통틀어 교회의 문은 회전하며 들어오는 사람과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회서신에 반영된 사역의 현실주의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마지막 명령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침울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즉시 몇 가지 명령으로 이어질 것이며 화면의 노란색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 제목, 고유 이름,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그리고 빨간색이 명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 곧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가 현재의 왕 노릇 함과 또한 그의 영원한 왕 노릇 할 그의 영원한 왕 노릇 하리로다 그가 돌아올 때. 나는 당신에게 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와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우리는 이 말씀, 즉 이 명령이 주어진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음, 여기에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금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면 그는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준비하라.

대림절 같은 때가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불리한 상황에서 과연 증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지, 아니면 이 무관심한 상황에서 과연 증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비하고, 바로잡고, 꾸짖고,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특히 목회자로서 큰 인내와 주의 깊은 가르침을 가지고 그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권고에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리더십의 두 가지 극을 볼 수 있습니다.

교훈하고 감독하며 바르게 하고 꾸짖고 오래 참음으로 권면하라. 이는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대중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발전을 인식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매우 큰 회중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격려할 수는 없지만 신중한 관리를 통해 위임을 통해, 특히 경건한 여성, 다른 여성 및 그들의 자녀에게 위임을 통해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남자들에게. 그러나 당신에게는 직간접적으로 큰 인내와 세심한 지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섬기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고 격려를 받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들에게 권고하는가? 왜 그는 그에게 그토록 진지하게 권고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앞에서, 왜 여기에 위험이 그토록 높습니까? 그런데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본질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참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걸쳐 사역을 해왔고 지금은 60년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로마 세계 전역에 복음이 확장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말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저항이 있었고 심지어 재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전한 가르침이나 교리를 참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맞게 많은 선생들을 주위에 모아 그들의 가려운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계에 대한 매우 예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참된 교회는 종종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그룹과 경쟁하며, 그들이 반드시 삼위일체론적이고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복음 제시 종류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일에 관해서는 잡초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건강과 부일 수도 있고, 정치적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목사의 자존심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고난을 견디십시오.

전도자의 일은 영어로 말하면 목회 이외의 일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가서 전도 집회를 설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가 목회 임무의 핵심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적절한 구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 양육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기본 메시지, 그분의 신성, 십자가에 못 박히심, 승천, 부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지속적인 중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사역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나는 세부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귀하의 책임인 많은 일을 미루어 두십시오. 직간접적으로 모든 일, 모든 디아코니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책임을 맡기신 사역이 당신이 그 소명과 의무를 정의롭게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토록 완전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쏟아부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미 디모데후서 전반에 걸쳐 이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물처럼 내가 이미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교도 종교에서는 신주를 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위나 컵 등에 포도주를 따르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당신의 생명과 행복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그는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경주를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시리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가 오시면 내세는 오는 시대가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착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일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초림과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것과, 마침내 그의 영원한 통치를 세우기 위한 재림 사이에 중간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처음으로 성취된 메시아적 약속의 성취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구원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중심점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 것, 그리고 다가올 시대가 취하는 모든 형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 세상, 땅에 있을까요? 변화된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에 있게 되는 걸까요? 전혀 영역이 될까요? 그것은 일종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복의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기쁘고,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함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시대가 어떠할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기록한 책들이 있지만, 다가올 시대의 보상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 갈망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일부는 보답받지 못한 것이지, 돌려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완전히 소유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고의 비애를 설명하는 것은 그가 가장자리, 터널 끝의 빛, 영원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의 높은 부르심, 즉 그의 첫 번째 디모데전서 2:12 부르심, 격려를 위한 목회 사역의 두 기둥, 즉 교훈과 가르침과 목회 감독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신실한 사역에 대한 반대가 예상될 수 있음을 봅니다. 3:4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귀를 돌리고, 진실보다 거짓을 듣고 싶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는 사도적 교훈의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디모데가 받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리지 않고 굳게 서서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신의 특별한 사목적 직무가 그에게 부여하는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IV는 여기서 중단을 발견하고 개인적인 발언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은 나에게서는 매우 개인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디모데에게 훨씬 더 개인적인 것이며 그의 복음 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복음 사역에 안수를 받을 때, 그들은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가 권고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도전에 표시하고 그들을 이 아래 두도록 권면할 것입니다. 그들이 응답한 복음의

부르심.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안수식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라 등등. 안수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그 구절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책망의 전반적인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청구 내 청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 전파에 관해 디모데에게 명시적으로 명령하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바울과의 우정과 관련하여 디모데의 삶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번역될 수 있는 그 말이 있으니, 열심을 내고 수고를 아끼지 말고 속히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힘쓰라. 나는 그가 로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어디에 있든 그는 거기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도와주었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가 복음 사역에 참여했고 지금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단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보험을 파는 것인지 부동산을 파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보험이나 부동산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가끔 사람들이 사역을 떠나기로 결정할 때 그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데마가 왜 바울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여전히 연관되어 있는 사도적 사역의 분배와 로마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장려하고 관리하는 데 여전히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버렸을 때, 두 사람이 그를 버렸고, 디모데는 반대에 직면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음, 모든 곳에서 복음이 대대적으로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이 여전히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단지 문지르거나 마찰 없이는 나가지 않을 뿐입니다. 오직 루크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린 마가 요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나바는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내 시체에 대해 그를 데려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화를 내며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쪽 길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것은 성격 갈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생애 말기에 요한 마가가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원되었습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올 때에는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에게 맡긴 겔옷과 내 두루마리 특히 양피지 문서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추측이 끝이 없군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수십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두루마리와 양피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경전 두루마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구약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신약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추측하도록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흥미로운 점은 사형수입니다. 폴은 여전히 책을 읽고 싶어합니다.

그는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의 일부였던 말씀 사역에서 생산적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언어가 이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당시 당시 랍비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발전된 랍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늙었고,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낙담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는 부츠를 신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처럼 인생의 낯은 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격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금속 노동자 알렉산더는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당신도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보복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불을 불로 싸우거나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가 당신을 이용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복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도록 하십시오.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나의 첫 변호에서는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법정에서 심리를 가졌고 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루크도 그를 버렸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루크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십자가 위의 예수님과 정확히 같은 태도를 주목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압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금속 세공인 알렉산더에 관해 그가 그를 넘겨주고 주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관대하고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육체의 약함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의 배반과 예수님의 재판,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쳤는지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나중에 완전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글쎄요, 바울은 이 재판에서 자신이 다소 의기소침하고 무미건조하다는 사실에 화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관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방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계절이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격려하시거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림은 폴이 재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폴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세대전, 30년 전, 33년 전, 뭐든 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모든 것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게 당신에 대한 혐의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검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심지어 혐의를 과장하고 더 많은 혐의를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폴은 그 자신의 것이었고, 여기서도 그 자신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문회에서 그는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사자에게 잡아먹힐 것을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참수형을 당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참수당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참수형은 로마 시민을 처형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제국의 최악의 처형은 십자가형이었다. 하지만 고귀한 로마인들은 죽음을 당해야 했고, 카이사르는 종종 매우 부패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내 말은, 네로는 명예롭고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예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명예로운 죽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자에게 던져지는 것은, 아, 그게 죽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죽기엔 좀 힘든 방법이군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모든 악의 공격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분의 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이 인간 교제의 위안과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야, 빨리 나에게 오라고 말한다. 이거 가져와, 그거 가져와.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70개, 12개,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반당하던 날 밤, 겟세마네에 들어가실 때 세 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멀리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는 혼자 가야만 했습니다.

12제자와 교회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은 예수도 아니었고 어떤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인간과의 교제를 통해 위로를 받기를 갈망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조항 중 하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반자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쩌면 우리는 서로 이메일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란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대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우리는 같은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9절부터 이 모든 이름과 장소와 움직임, 특히 디모데와의 관계, 즉 인간 교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신의 현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배반했습니다. 충격일 수 있습니다.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항상 씁쓸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역은 친구뿐만 아니라 적을 만들어낸다.

14절과 15절. 알렉산더는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바울이 어느 정도 알렉산더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알렉산더를 신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 사역과 관련하여 일종의 연관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알렉산더는 어떻게 든 그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삶과 죽음에서 위로와 관점을 주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는 생사가 걸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사자의 이빨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는 천국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결국 투덜대지 않도록 구원의 비전입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방식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람의 감각을 훈련시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비생산적인지를 아는 훈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일에 충실하고, 결국 큰 일, 즉 우리 모두가 건너야 하는 그 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추진력이 있고 성품과 헌신의 습관이 있어서 여전히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감옥에 있고 생각하고 있다면 꽤 크게 보일 수 있는 도마나 콜로세움과 사자를 추측할 것입니다. 다음 번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바로 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말은, 당신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누가에게 쓴 이 편지를 받아쓰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신라와 아굴라를 탐하여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나는 드로비모를 병들어 밀레도에 남겨 두었느니라.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에 오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디모데에게 와달라는 또 다른 간청이 있습니다. 으불로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부덴과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 중 누구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그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끝에 있는 유일한 복수형입니다. 효과적인 사역은 의미 있는 네트워킹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폴이 그토록 유능하고 회복력이 강하며 인내심이 강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소셜 네트워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모두가 사자에게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거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이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 복음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셋째, 주님과 그분의 은혜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빛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이 편지를 받고 그것을 읽고 풀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풀을 구제하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여부와 그가 거기에 망토를 가져갈 수 없거나 도착했는데 풀이 방금 도착했다면 얼마나 공허한 느낌이 될지,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행.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계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핸드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번성하는 것과 똑같은 주님의 임재를 그에게도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디모데의 전체 교회 환경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은총을 주소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이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먼저 바울이 투옥된 것과 디모데에게 고발한 일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분명하고 끈질기게 다루고 있는 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편지에는 당황함도 없고 우울한 자기 몰입도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말씀과 진리처럼 그분과의 교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들입니다.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에서 중요한 점 하나는 하나님의 총족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총만하심, 창조의 정점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열어 주시는 관대하심입니다. 위치가 너무 반항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완고함은 우리 구주에 의해 상쇄되며, 따라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데, 이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광스럽고 완전한 교통의 전조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식을 많이 듣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모든 장에서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언급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적인 집착도 아니고, 비관적인 전망도 아닙니다. 오, 앞에는 파멸과 암울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신이 여러 환경에서 목회 교사라면 제자도의 대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해에 관한 현재의 문헌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중국에서 문제이다.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인을 어떻게 폐쇄합니까? 글썄요, 그들이 조직된 방식, 기독교인을 폐쇄하는 방식은 그들의 지도자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쳐두고, 당신은 이것에 대해 내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말해서 여성이 목사직으로 승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탄압당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가장 먼저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 내 자매들, 내 딸들, 내 아내가 기독교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한다. 누구에게나 나쁜 일이지만 교회의 목회적 보호의 일부는 여성, 어린이, 고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우리를 격려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당국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당국에 무상으로 폭로하려면 기독교인이 되려면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셨을 때 이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쫓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임명하지 않으셨고, 많은 여자들의 도움을 받으셨고, 여자들의 대의를 높이시고 발전시키셨지만, 여자들을 교회의 최전선 공격에 노출될 사람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에 대해, 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교회가 문제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이라는 견해가 없다는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폭도들의 대응일지도 모르지만, 더 일반적으로 인도나 나이지리아와 같은 전략이 있거나 중국과 같이 고위층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을 제거합니까? 특히 목회자들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체포, 억압, 탄압에 노출되며 이는 초기 교회 성장의 큰 부분이며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는 계속해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교회는 저항을 일으킬 만큼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순응하고 있고 사람들은 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순교자들의 피는 게으르고 나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까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를 꺼리는 나머지 교회에 대한 수치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 교회에 돈을 기부할 생각도 없고, 돈도 받았지만,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인색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세계 다른 지역의 많은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휴가비, 도박금, 술값, 술값 등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회피하는 형태입니다.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프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초점은 경전과 그 내용을 사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으로 가르치셨고, 성경을 구체화하셨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바울의 글은 성경에 크게 의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은 성경의 신성함, 성경이 하나님께 가까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성경의 필요성을 확증하며, 그 다음에는 바른 말의 패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함, 말씀은 매이지 아니함과 같은 많은 진술을 단언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목회 봉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주신 성경을 전하는 일에 올바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진리와 성경의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당신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력과 방향으로 우리를 모으는 사도 바울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서신 전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 얻는 유익에 대한 지침을 얻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서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사형수로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글썄, 그레이트. 바울의 경우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중 한 분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

제가 무척 사랑했던 신이 없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분은 저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셨고, 제게는 아버지 같았지만 그는 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쌍한 할아버지는 농장에서 말과 돼지를 치며 죽도록 일했고, 침례교 집사였고, 8학년까지 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데도 여행한 적이 없었지만 기도했고, 관절염이 있는 늙은 팔로 회중의 노래를 인도했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집사였고, 나는 그가 그의 손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구원자에 대해 나의 눈을 열어주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보잘것없는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도로 그분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고, 할아버지의 기도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디모데는 그의 유산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고, 바울은 그의 유산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애정, 그들이 가졌던 넥타이, 그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복음 안에서의 사랑,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깊고 풍성한 우정 속에서, 아마도 우리는 조금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조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달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총명과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점을 갖게 된다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충실하게 봉사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승인이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을 피할 자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사람들을 묶어 놓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망칠 수 있으니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은혜이고, 그러면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살롬과 화평을 추구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냥 대충 훑어보면 교회 언어처럼 들리지만, 교회 언어는 아닙니다.

이는 이 젊은이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깊고 통렬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찬송가로 부릅니다. 그 찬송가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한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위에 그들의 금관을 던지고, 그 금관을 던지며, 같은 바다, 수정의 바다 주위에, 그게 다입니다. 수정같은 바다 주위에 그들의 금관을 던집니다.

의의 면류관은 결국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모든 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이 그것의 충만함을 다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인간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잡으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관찰하고, 거기에 있는 것에 충실하고, 지금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끌어냅니다. 디모데후서는 성경에서 가장 감미로운 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과 내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디모데후서와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도서에 대한 후속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에 대한 가르침,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 세션 11, 디모데후서 4장에서 로버트 W. 야브로 박사입니다.